



돼지내장은 약된다.



이종오 박사
(동의침술원장)

인간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계를 보아도 채식동물과 육식동물로 구분된다. 소나 말, 그리고 코끼리 등이 채식동물이며, 사자, 호랑이, 늑대 등이 육식동물이다. 그리고 사람도 혼식하는 인간이 있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혼식하는 동물이 있다. 그런데 몸뚱이는 크지만 채식만 하는 코끼리는 성질이 온화하고 육식동물은 포악하며 거칠다. 선인들은 사람도 채식하면 마음씨가 온화하며 육식하면 성품이 거칠어 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채소나 동물이나 생명은 다 있다. 그러나 짐승을 죽이려면 잔인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박애심으로 살생을 금하고 먹는 것까지 금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도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생선회는 불찬성이다. 의학에서도 생육은 독이 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정책으로 유아에게 우유를 억제하고 母乳(모유)를 권장했는지도 모르겠다. 모유는 의학적으로도 유아에게 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95%가 미국은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고 있다고 한다.

호랑이, 사자, 늑대 등의 순수한 육식동물은 다른 짐승을 잡아 내장을 먹어치우고, 몸뚱이는 버린다. 이것은 내장에 풍부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코기를 먹고 내장을 등한시하여 값이 싸다. 그러나 다행히 버리지 않고 소 내장인 곱탕, 설농탕이나 돼지의 내장인 순대를 먹고 있으니 천만다행이다.

의서에 보면 돼지 위(밥통)는 소화불량에 약이 되고 위궤양이나 상처에는 불어말여 세분해서 아침마다 한 숟갈씩 물로 먹으면 상처가 낫는다고 했고 위(胃) 출혈에는 금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다는 말인데, 체질론을 살펴보면 위가 열한 소양인(少陽人) 체질에는 유

효(有效)하고 위가 가장 냉한 소음인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다.

외과적인 상처에는 어떤 체질인에게도 도움이 되며, 모든 피부병에도 좋다.

돼지 염통은 심장병, 간질을 다스리며 식은 땀이 낫는다고 했고, 돼지 간(간장)은 악성빈혈 등에 신효하다고 했지만, 이것도 소양인에 한해 효과가 있다고 본다. 눈도 밝아지는데 소양인에게서는 절대적이다.

사람이나 돼지나 모든 동물에 콩팥은 혈청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혈액속에 노폐성분을 길러내는 구실을 하고 동시에 기능까지 촉진시킨다. 때문에 보양되는 것이다. 콩팥은 말려서 세분해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고 했다. 이와같이 돼지 내장은 인간에게 약으로 쓰이고 있다.

오늘날 당뇨병에 쓰고있는 인슐린은 돼지내장에서 추출하고 있는데, 일부 한의사나 의사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며, 돼지고기는 병이 낫지않아 다른 육식을 먹어 오히려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금하고 당뇨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서에도 당뇨에 치료가 된다고 했다. 돼지 내장이나 고기도 부분적으로 약이 아니되는 곳이 없다.

모두가 각종 병에 약이 된다고 했다. 우리는 좀더 돼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면 한다. 일본 오키나와 지방의 장수촌은 돼지고기가 주식이라는 보고다. 돼지고기는 오늘날 증가되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은 체질에 준하지만 결론적인 효과가 있다. 본인은 70평생 돼지고기를 먹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증상이 없다. 눈도 40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시력이 좋은 편이다.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돼지고기 먹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연락처 : (02)248-1528-9)